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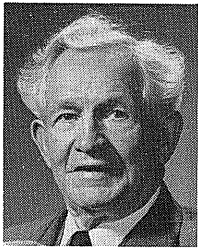


몰몬 대대 기념탑

관계기사 3페이지

대관장 말씀 : 우리가 할 일... 1
모범의 힘... 12 훌륭한 동반자... 19

성도의 벗 10
1969



영감의 멧세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류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마음을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몸가짐과 행동으로 시사해 왔습니다. 인류가 마음과 생활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세상의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현대문명은 붕괴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도 한심한 노릇이지만 인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만인이 다 아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는 자기의 영예를 탐하는 풍조가 어느새 인간의 마음을 기뻐하기에 이르렀으며 불경한 짓을 다반사로 일삼고들 있습니다.

세상은 보다 신성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기 모델보다는 자기 절제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여, —그러나 저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눅 22:42)라고 더욱 더 구해야 하겠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삶을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다툼이 밀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것이 아니오 사망의 분쟁과 불행을 자초한 것은 인간입니다. 불의한 지도자의 잔악함으로 인하여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피로움이 최후의 승리를 견우고 온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전쟁 종료의 소망과 인류간의 사랑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 1969년 10월 1일
(통권 제 51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매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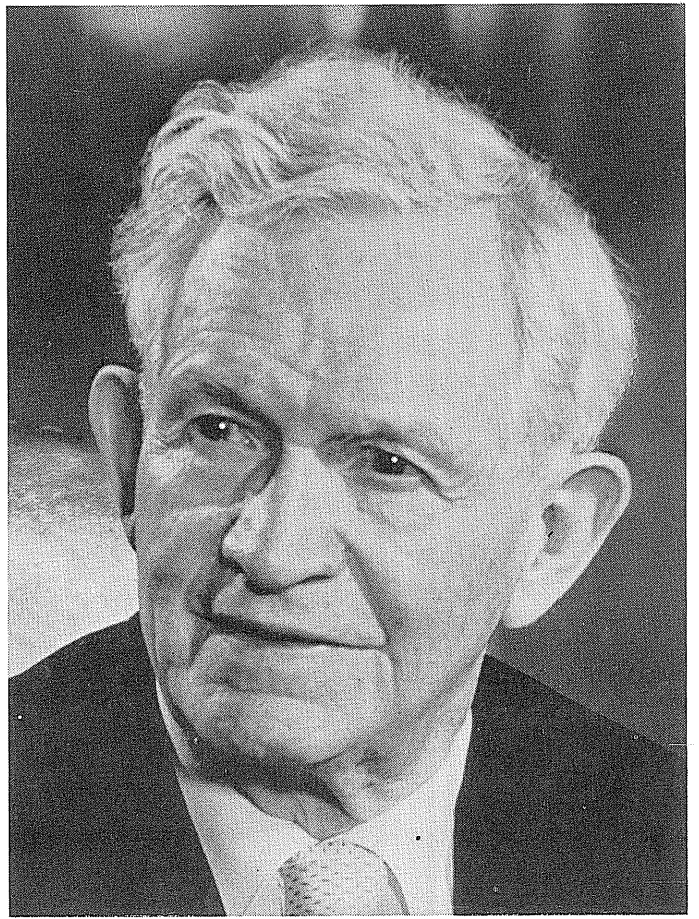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 5 권 제10호 순서 1969년 10월호

권두언 : 우리가 할 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죽음의 카테이지로 리그랜드 엘. 베이커 2
 ■ 특별기고 ■ 샌디에고의 물론 대대 기념탑 리차드 제이. 마샬 3
 나의 아들을 위한 나의 몸가짐 다니엘 에스. 헤스..... 9
 주를 사랑하라 헨리 디. 테일러10
 모범의 힘 델비트 엘. 스테플리12
 ● 어린이 성도의 벗 ● 철이와 바다 웅 매블 존스 가봇15
 솔로몬 왕 도로디 오. 박커16
 훌륭한 동반자 로웰 엘. 베니온19
 주일학교 : 개인과 이념 진 디. 쿤스20
 어떻게 여자다움을 가르칠까? 알버트 알. 페인.....23
 상호 부조회 :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애프톤 더블유. 헨트.....25
 따듯한 교훈 그레이 이. 바우26
 청소년 편 : 소수의 사람만이 린다 수 로퍼.....27
 선교부장 멧세지 : 모범이 되자 서 현보29
 지방부장 멧세지 : 늘 기뻐하면 행복하리라 차 중환.....30
 내외 소식31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훈 리차드 엘. 이반스뒷표지

표지 설명 :

솔트레이크의 조각가 에드워드 프라톤이 최근에 완성한 작품 2,000 마일에 달하는 물론 대대의 행군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길었던 행군이며 군대의 임무에 보다는 교회의 임무에 더 큰 역점을 두었던 행군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사람에게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리를 따르려는 성품이 있습니다. 진리의 추구는 인간이 결머진 의무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회복되었고 말일성도가 이를 배워 알고 있으므로 말일성도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다 더욱 더 진리를 추구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젊은 청년은 고상한 신사요 여인의 세계를 지켜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를 존경하고 이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려 하지 않으며 행복을 안겨 주려 합니다. 어디서든지 일단 책임자로 뽑히면 신임을 받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것이 아닌 것에는 관여치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의무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요 또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수십년 전의 어느 뱃사람들 처럼 우리 개개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반 노예 운동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보스톤의 페인유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이야기 하려는 그 뱃사람들은 모임을 방해할 뜻으로 고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배를 지어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실내를 누비어 연설자가 시도하는 이야기를 온갖 수단으로 방해 했습니다. 이들의 소란에 관계없이—자유의 갈망, 옛 고향의 추억, 마사추셋의 선언 등이 선포되었으나 방해자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조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들 일행 중의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곧 주위는 조용해 졌으며 이들 무리는 소란을 그쳐야 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내가 스스로 조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소란을 그치지 않을 작정이다.” 이에 용기 백배된 무리는 소란스런 박수를 오래도록 쳤습니다. 박수갈채가 끝나고 방해자의 무리가 더 듣고 싶어 하므로 그는 다시 뒷말을 이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뜻을 정하기 전에는 결코 조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라면 나는 나의 뜻으로 조용하기로 정하겠다. 이는 이 의사당의 기억 때문이 아니오 마사추셋의 선서 때문도 아니오, 정부에 대한 충성때문도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두 어른이라는 것 하나다. 인격을 갖춘 성인은 권리와 정의와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정정 당당하게 한다.” 무리는 잠잠해 졌습니다. 이들은 자책감을 무겁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개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자

양심이 가르치는 길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점에 약한 인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곧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기회를 얻고도 우리의 진실을 실제로 생활하지 못하던가, 선한 뜻을 실천하지 못하던가 선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만 이를 행동으로 연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

원 개개인은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라면 이 행복한 메시지를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체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전해 줄 영광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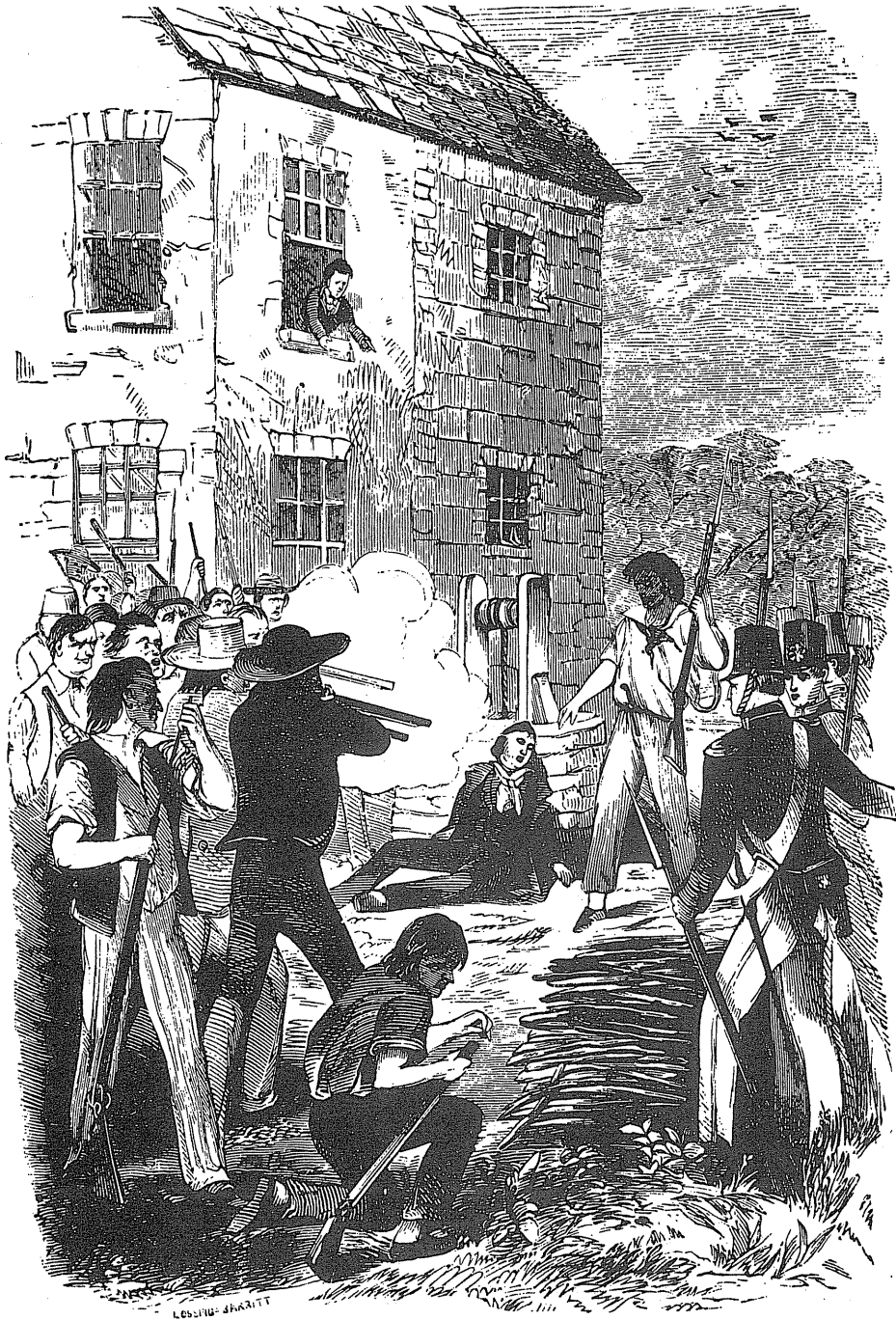
지고의 헌신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임무에 함께 언급해야 할 중요한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개별적인 결심입니다. 남에게 모범이 될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준을 높이 치켜들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의 역군이 되지 못합니다. 설명의 여지가 한 마디도 필요 없는 간명한 예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업의 대표자를 임명했는데 그가 여러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래도록 여러분의 대표자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표준을 지키지 않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두실런지, 청결한 삶, 그것은 참으로 막중한 임무입니다.

둘째번 것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임무를 모든 다른 것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은 가장 귀한 임무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과 지고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진리에 바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처자식, 부모를 등한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최후로 남긴 말 중에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 19:26—27)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인가!

죄는 인간에게서 떠나야 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 죄를 근절시킬 더 좋은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 외의 다른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맡아야 할 일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임무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니 저마다 부지런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해야겠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든 이를 최선의 성의로 이행하면 주님의 축복과 행복이 이를 것입니다. (교성 107:99 참조) ○



죽음의 카테이지로

리그랜드 엘. 베이커

● 그가 죽기 일년 반여 전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공석에서 발표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나는 나의 사명과 임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하나님의 나의 친한 분이신데 감히 인간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나는 희생되지 않을 것이며 때가 이르면 기꺼

이 바쳐질 것입니다.”

몇달 뒤에는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한 이야기를 전했다 “...나의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들이 나를 해칠 권세를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요셉 스미스가 그의 간증을 그 자신의 피로 결빙하여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때가 언제일 것이라

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그는 분명히 물몬경의 번역을 끝내기 전에 이를 알았으며 이미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였다. (교성 5:22) 모로나이의 첫번 시현에 관한 그의 기사에는 그의 이름이 좋게도 알려지고 나쁘게도 알려지리라는 이야기의 온전한 암시의 내용이 다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또한 그의 일기 어디에 보아도 그의 이름이 예언으로 언급된 “...또한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 하나 이루지 못할 것이니” (나이 3:14)라고 한 구절을 번역할 때에 그가 이를 다르게 생각했다거나 머뭇거렸다는 기사는 없다. 누군가가 “그를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리는 없다. 그의 모친이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 하었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자신의 일기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기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던 어떤 죽음같은 겨울밤에 요셉은 마차로 오하이오주 커트랜드를 탈출했다. 곧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요셉을 살해하려는 폭도의 추격을 받았다.

“날씨는 살을 에일듯 추웠고 우리는 마차에 몸을 숨긴채 커트랜드에서부터 200여 마일을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며 추적하는 폭도의 손길을 벗어나려 애를 썼다. 이들 폭도들은 자주 우리를 지나쳤고 같은 집에서 두번이나 묵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밤을 지낸 때도 있었다. 또한 벽을 사이로 우리를 잡으면 우리를 요절내겠다는 저들의 몸서리 치는 맹세의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밤늦게 우리가 묵는 방으로 수색을 오기도 했으나 정작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거리에서 우리가 저들을 지나치며 저들을 쳐다 보았으나 저들도 우리를 마주 보면서도 도무지 우리를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폭도들은 예언자를 붙잡겠다는 희망을 다 잊고 커트랜드로 돌아갔으며 요셉은 미조리주로 갔다.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언자는 또 다른 폭도들의 손에 무참하게 체포되었다. 이 일단의 폭도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 예언자를 바로 그 다음날 총살하기로 판결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형 집행은 연기되었다. 예언자와 그의 친구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으나 감옥서 구석구석으로 끌고 다니며 죄수들의 야유와 조롱을 당하게 했고 침뱀음을 당하게 했다. 요셉과 그 친구들은 긴 겨울이 다 가도록 이러한 곤욕을 당한 후 마침내 놓여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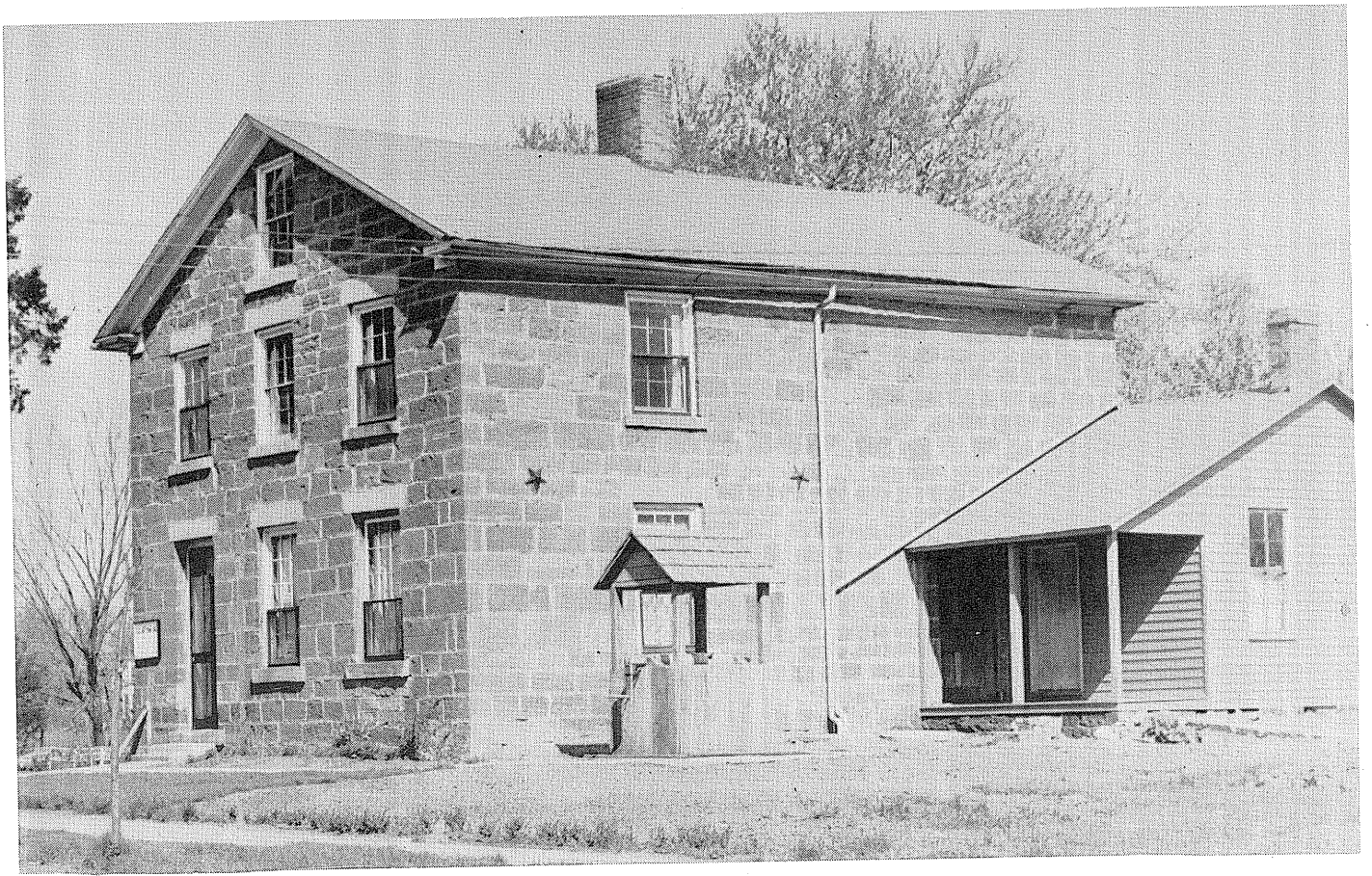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한 때 회원이었거나 당시에 회원인 자들의 사주로 최악의 증오를 품은 자도 있었다. 기록에 의하

면 윌리엄 라의 총기 취급자였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예언자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라의 소리를 엿들은 소년은 “서둘러 옷을 주어 입고는 예언자의 집으로 달려가” 그가 보고 들은 일을 전한 다음 예언자에게 자기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다. 예언자는 그 소년에게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고용주를 위해 총을 잘 재어 두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년에게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날 아침 라의 소년에게 육연발총을 잘 닦아 기름을 치고 실탄을 재 두라고 했고 이미 예언자의 분부를 받은 바 있는 그 소년은 명령대로 이행했다. 때를 포착한 라의 육연발총으로 요셉을 겨누어 살해하려 하였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첫발부터 모두 불발이었다. 그는 발사되지 않은 총을 저주하면서 실탄 장진을 잘하지 못했다고 소년을 책망했다. 소년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노라고 대답했다. 라의 다시 전전주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실탄 여섯 발이 다 발사되었다. 요셉이 죽을 때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닥아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보았으며 이를 맞기 위한 세심한 준비를 했다.

그가 가장 염려하였던 문제는 교회의 지도 체제로서 과연 예언자가 죽은 다음에 누가 교회의 영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마땅히 그의 후계자는 그를 조좌하던 하이람 스미스라야 했다. 이 직책(원래는 율리 카우드리가 맡았었음)을 맡은 하이람은 그의 형제 요셉과 더불어 대관장단의 온갖 열쇠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을 참작하여 예언자는 하이람 스미스를 교회 대관장의 후계자로 “성임”하였다. 그 이후로 예언자는 하이람에게 가족을 데리고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나부에서 멀리 떠나 있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예언자의 보좌는 예언자와 더불어 예언자의 간증을 결봉하는 것이 역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그의 형을 이어 교회의 대관장이 되느냐 아니면 카메이지로 가서 형과 더불어 예언자의 간증을 자신의 피로 결봉하여 세상에 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카메이지 행을 택하였다. 십이사도 회의가 자동적으로 후임을 맡아야 했다.

“죽임을 당하기 한 달쯤 전에” 요셉은 십이사도가 교회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이들 열 둘을 준비시키고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광 전체의 옷을 입고 매



카테이지 감옥.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물이 있는 창가에서 순교 당했다.

일 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늘에 속한 일과 왕국의 열쇠와 신권의 권세와 때가 충만한 말일의 복음의 지식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들 열 둘만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열쇠가 사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모든 교회의 회원들도 충분한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면 죽임을 당하기 한 달 전에 예언자는 교회가 서부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언자는 서부로 이주하려는 교회의 계획이 부리감 영이나 그의 권속들이 책동한 것이 아니오 교회의 계획임을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기회만 있으면 회원들에게 서부로의 이주를 설명하였고 서부 답사대를 조직하여 성도들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 답사대를 서부로 파견한 것이 아니고 나부에 남아서 정규 집회를 갖고 루키산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사항을 토의 검토하게 했다. 그는 또한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할 경우의 진로를 표시한 지도도 준비하였다. 이때 준비된 지도의 사본을 부리감 영과 물론 대대의 회원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예언자는 서부에서 성도를 다스릴 행정 체제도 수립

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협곡은 멕시코인들의 관할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미국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가 조직한 행정부는 십이사도를 포함하여 50명이었으며 50의회인 이 조직은 서부로의 이주를 관리하고 교회 회원의 안주를 관장하였다. 예언자나 하이람 스미스가 없이도 교회를 운영할 만큼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립한 다음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뜻으로 역원 전원을 한 자리에 모았다. 윌포드 우프렙과 베냐민 존슨은 당시의 모임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요셉 스미스는 나부 건물에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 그때 그 말씀은 일찌기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서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권세에 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산호처럼 맑았다. 그리고 방안은 불같은 열기로 가득찬듯했다. 그는 세 시간을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의 사도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는 목적을 이행할 뜻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언자요, 선견자, 그리고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계시자로서 이 때가 찬 세대가 필요로 하는 온갖 원리와 신권과 의식과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

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나의 어깨에서 벗어 여러분 십이사도의 어깨에 모든 열쇠와 전세와 특권과 더불어 걸어드립니다……” 바야흐로 예언자는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은 끝났으며 그의 간증을 그의 피로 결봉하는 일만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제 그 일을 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알기 어렵다. 그는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 남아 있기를 원하였으나 그에게는 참으로 안식이 필요하였다.

베냐민 에프. 존슨은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기 얼마 전에 존슨 형제의 집을 방문하여 깊은 한숨을 쉬며 빠질듯이 의자에 묻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보고했다. “...아! 난 정말 피곤하구나. 때로는 안식과 휴식이 목마르게 그렇다.” 그리고는 생애에 겪은 인상 깊었던 일을 술회하며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며, “난 피곤하다. 나의 쉼터로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음성과 어조는 나의 온몸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와 더불어 오래 살고 싶다는 나의 소망을 갈갈이 찢는 듯 했다. 그리하여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 요셉 우리들이 당신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 가며, 말일성도의 위업은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저으기 나의 진심에 감동된 듯 보여지던 그가 대답하기를, “베냐민, 나는 그대를 멀리 떨어져 가는게 아니오. 마치 장막을 사이고 두고 하듯 난 장막 저편에서 당신과 함께 열심히 일할 거요. 그리고 크게 번성한 힘으로 이 왕국을 거닐겠지——”

잠시 동안에 예언자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는 무르익었다. 200여명의 예언자의 적도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저들의 생명과 자유와 온갖 수단을 다바쳐 “요셉과 그 일행”을 없애기로 굳게 맹약을 나누었다.

예언자의 친구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으나 요셉은 저들이 실제로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미 그 내막을 알고 있었다.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당은 소위 “나부 해설자”라는 신문을 만들어 그 처음 기사로 예언자를 공격하는 내용을 실고 계시의 내용을 더럽고 추잡한 음담 패설로 바꾸어 발표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휘하 시 평의회는 이 신문을 공식 폐기하고 인쇄시설을 제거하였다. 적도들은 자기들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 행정청에 와 요셉 스미스의 범죄를 진정하는 일면 주군과 폭도를 규합하여 나부시를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다.

1844년 6월 22일 요셉은 그의 마지막 일기를 기록했다. “나는 스테반 마카함에게 나와 하이람이 다시 체포되는 날에는 학살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하이람이 남아 나의 피를 복수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내 결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언자는 그가 다시 잡혀가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사태를 조종해야 하는 사람은 폭도가 아니라 자기임을 알았다. 그는 죽기 전에 여러 가지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가 일기의 마지막을 기록하기 이틀 전에 이미 그는 동부에 정치적인 임무를 맡고 떠났던 열두 사도에게 편지를 띄어 즉시 돌아오도록 조치했다.

예언자가 무엇 보다도 갈망했던 것은 나부를 폭도의 손으로부터 지키려는 뜻이었다. 폭도의 군대가 나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언자는 하이람과 함께 미시시피를 건너 서부로 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폭도들이 자기가 없어진 걸 알면 나부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들을 확신시켰다.

그리하여 예언자 형제는 함께 달아났다. 이들 형제는 적의 손에서 완전히 놓여난 것이며 원하기만 하면 서부로의 탈출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태를 관망하기로 작정하였다. (하이람의 이야기이다. 물론 요셉도 닥아오는 그의 순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카테이지로 가는 길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음을 당하러 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조용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던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던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리라—그는 담담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교성 135 : 4 참조) 카테이지 감옥에 갇힌지 몇일이 지난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는 내가 정당함을 알고 또 최선을 다한고로 마음이 평안하오. 나의 자녀와 친구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소.....”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폭도들은 복도에서 아우성을 치고, 하이람은 이미 죽은 몸이었다—예언자는 조용히 돌아서서 피스틀을 마루에 던지고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그중 하나가 그의 오른 쪽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오 나의 하나님, 주여!” 외치며 땅에 떨어져 살인자의 손에 넘겨졌다.

“이 유언을 남긴 자는 이제 죽었거니와 그 유언은 살아 효력을 내는 것”이다. (교성 135 : 5 참조)

○

샌디에고의 몰몬 대대 기념탑

리차드 제이. 마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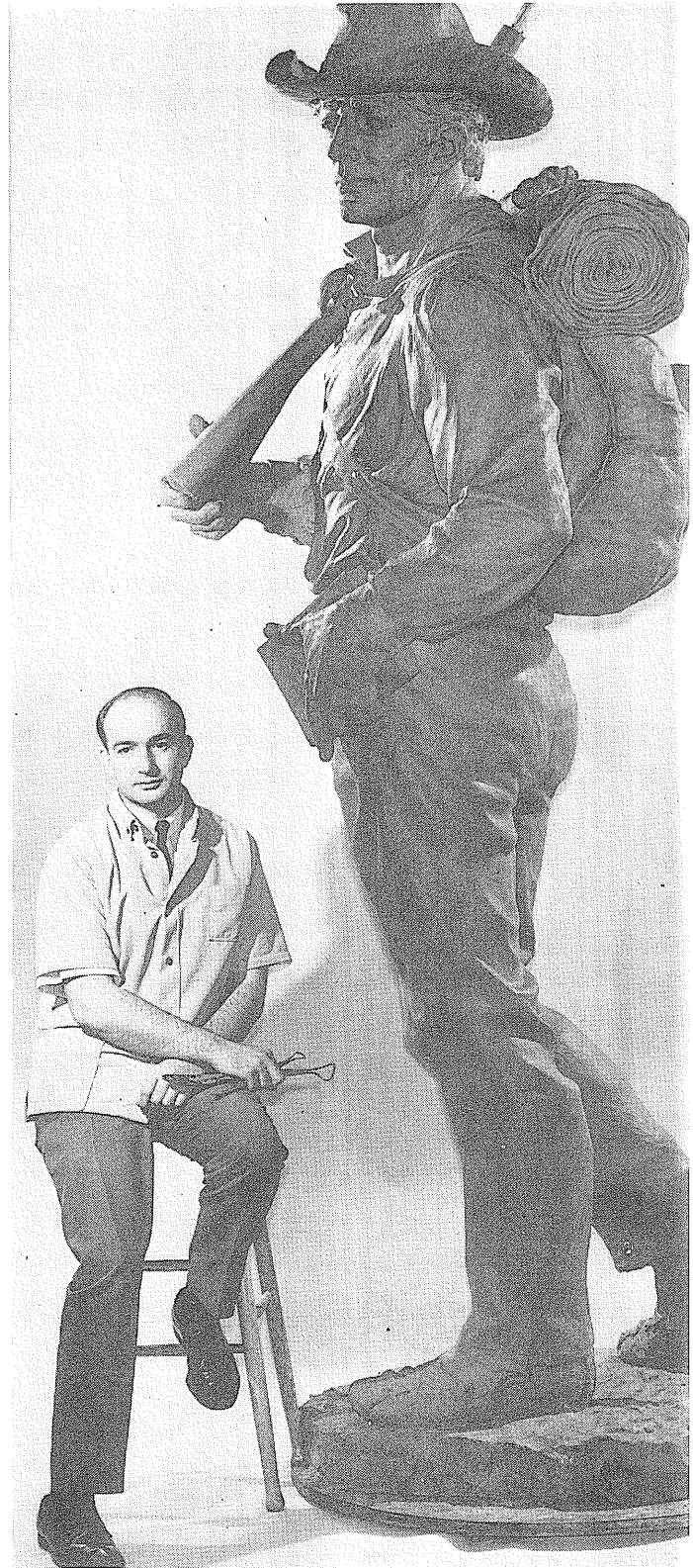
● 이번 여름으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시는 200살이 되었다. 이 역사적인 때를 맞아 유타 개척자의 아들들은 또 하나 중요한 몰몬 예술을 창조하였다. 몰몬 대대의 군인을 상징하는 9척 반의 거구의 이 조각은 배낭을 등에 메고 행진하는 모습이며 오른 손에는 장총을 들었고 몰몬경이 그의 왼손에 들려있다.

이 기념비는 솔트 레이크 시에 사는 몰몬 조각가 에드워드 프라튼의 작품으로 현재는 이태리의 후로렌스에서 청동을 입히고 있다. 곧 이 작품은 샌디에고의 관리에게 기증될 것이며 이곳 공원에 영구히 비치되어 1847년에서 1849년까지 주둔했던 몰몬 대대가 샌디에고 선교부에 기증한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이다.

멕시코 전쟁 당시 캘리포니아를 구하고자 이곳에 파견되었던 몰몬 장병들은 군복무 만으로 격무를 겪은 것이 아니라 일면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담벽을 쌓는 일도 다해냈다. 결국 몰몬 대대는 벽돌을 써서 그것으로 큰 군청 건물과 학교를 지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건물이 완성되자 “시민들은 큰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열었다.”

그 당시의 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몰몬 대대 장병들은 샌디에고 시민을 위하여 목공일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이들이 주둔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면 모두들 섭섭해 했다.

대대 대원 중의 일원이었던 헨리 지. 보일은 그때의 작업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우리 대대가 샌디에고 전체를 말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대장간 일도 다 맡아 했고 빵집도 새로 지었으며 짐 수레도 모두 새로 만들고 또 손질을 했고 시민 전체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두를 다 하였다. 시민들은 우리를 끔찍이도 아꼈으므로 우리들



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지사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탄원했으며 탄원서에는 샌디에고 시민 전체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석달동안이나 고된 일을 해오던 이들 물론 대대의 주력은 샌디에고를 떠나 샌 버나디노로 이동했으며 이곳에 주둔하여 난폭한 인디안의 공격을 캐논 협로부터 배바다 산에 이르는 선에서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이곳에 1848년 3월까지 주둔해 있다가 보일 대위와 오리인 록스웰 대위(이미 일년 전에 쏘트레이크에서 왔음)의 지휘로 남부 캘리포니아로부터 유타로 여행하는 첫 포장마차와 더불어 유타주로 복귀했다.

이미 1847년에 유타로 향하여 도보로 떠난 군인들은 캘리포니아 셰크라멘토까지 긴 해안선을 걸었으며 셰크라멘토에서는 존 에이 셔터 대위의 미국 탐험가 휘하에서 임시로 일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 정규군의 자격으로 셔터 대위의 진로를 파헤쳐 주는 작업을 했으며 한달에 7불씩의 보수를 받았다.

이들 물론 대대의 긴 여행을 끝까지 종군하며 공식 기록을 맡았던 다니엘 테일러는 물론 대대의 전우들이 금을 발견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말하면서 “우리 미국의 재력을 크게 부강시키는데 있어서 물론 의 노력이 큰 일을 해냈다. 1848년 1월 24일이거나 적어도 그때 쯤, 정부군 총 지휘관은 건물 밑으로 흘러 떨어지도록 유도한 시험의 결과를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의 눈은 새로운 황금색 물체를 발견해 냈다. 빛나는 눈으로 판별해 낸 그 물체는 훌륭한 사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이들에게 쏘트레이크로 돌아와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에 합류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전원이 사금광을 버리고 브리감 영 형제와 가족과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받을 갈았다” 샌디에고 기념 동상은 이들의 말없는 용기와 헌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한 손에는 물론경을 들고 주머니에는 브리감 영의 지시대로 성경을 넣었으며 윌라드 리차드를 서기로 하는 보충병으로서 이들 500명은 교회와 정부를 위하여 용전 분투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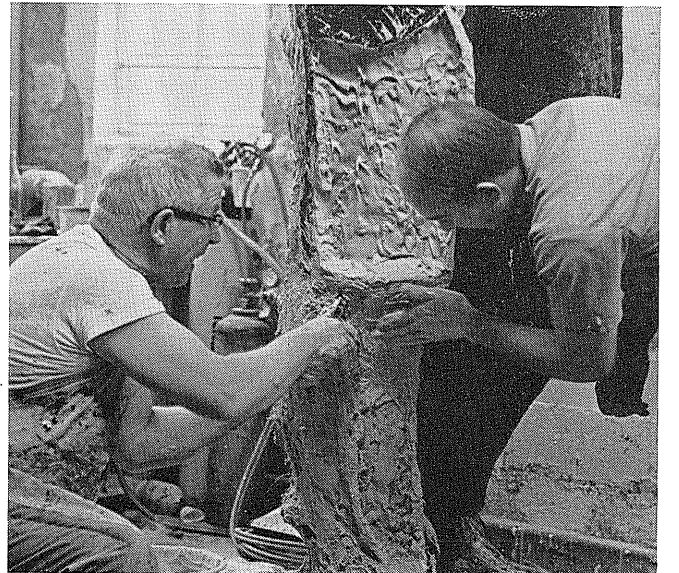


물론경을 잡은 손

석고로 재현된 배낭



대강 만들어진 모양에 석고를 입히고 있다.



이들은 참으로 특이한 군대였으며 브리감 영은 각 대 대장들에게,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고 신권의 권능과 영향력으로써 일체의 사무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목숨을 보존하며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였다. 영 형제는 저들에게 “순결하고 청결하며 사랑과 온유와 교양을 가르치고 절대로 상스런 욕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끝으로 그는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음에 톱키 산맥 중에 세워질 신전이 폭도를 막아내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어렵고 긴 여행을 하는 동안이나 샌디에고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모두 쏘트레이크의 대 협곡에서 모든 가족과 상봉할 것이라는 굳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썬크라멘토의 황금의 유혹이 있었지만 영 형제의 말씀은 “성도와 다시 함께 한다”는 저들의 소망을 새롭게 해 주었다.

샌디에고에서의 지휘관 피. 세인트 쿡 중령은 물론 아니었지만 극진한 물몬 대대의 업적을 미국 역사에 기록하도록 보고하는 가운데 2,000마일의 여행을 끝낸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보병 행진의 유례를 또다시 역사에서 찾아보는 일은 헛된 일일 것이다. 행진의 십분의 구는 야만인과 거친 들짐승이 쫓는 벌판이었으며 생물이라고는 풀 한 포기 없는 메마른 사막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노력을 제공하여 이후의 여행자를 위한 샘을 팠고 여행 안내자도 없이 여러날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여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지렛대와 도끼를 들고 마치 산을 달리는 산양처럼 산길을 넘었으며 마차도 못 지나는 좁은 바위길을 걸어 협곡을 지나면서 눈에 띄는 들짐승을 잡아 연명하며 이후의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길을 닦았던 것이다.

물몬 대대가 주둔한 지역이 여러 곳이건만 샌디에고에서는 이곳의 사회 복지와 질서 안정을 위하여 일하고 높은 유타 평야의 산으로 돌아간 이들 부지런한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것이다.

현대의 복장과 모습으로 무장한 이 청동 기념비는 지난 어느 시대의 병사들의 개인적인 희생과 간증을 전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봉사를 목표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

나의 아들을 위한 나의 몸가짐

다니엘 에스. 헤스

나의 아들 스테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육체를 아프게 하는 벌은 주지 않겠다. 가장 아름다운 이념이 생애에 성취된 것은 강압이나 제재가 아닌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격려해 주고 성인에게 대하듯 그를 존경하며 결코 부정적인 태도로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거나 낙심시키지 않겠다.

긍정적인 자세로의 사랑과 소중함을 보여 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력이 소모되었음을 기억하겠다.

나는 또 내가 성급했던 때를 기억하고, 아직은 내가 어렸을 때 이해와 인내를 보여준 이들에 대하여 품었던 감사함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인 까닭에 늘 그 앞에서 품위와 존경으로 살고 그의 어리고 미숙한 나이와 이해심이 미흡함을 기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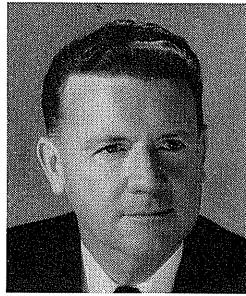
나는 또 모범됨이 가장 훌륭한 선생임을 기억 하리라. 과연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가 나의 아들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것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성공은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몸가짐에 달려 있으니, 지고의 신뢰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의 내 어깨에 달려 때문이다.

이른바 세상의 영예는 죽음과 함께 사라 지나 부모로의 성공은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이 세상과 영원의 군중의 마음에 비치리라.

나는 나의 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가장 값진 재산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육신을 입은 영원한 영으로 나의 보호에 의지하는 생명임을 기억하리라.

주를 사랑하라



헨리 디. 테일러

십이사도 보조

● 맨 처음부터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며 또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의 임무를 이행하시는 동안 사랑의 원칙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어떤날 유식한 율법사 한 사람이 주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 다음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 : 36~40)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의 편견과 약점을 가진 우리들에게 보람직한 달성 목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마태 5 : 44)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정부 요원 가운데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의 벽을 헐라”고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당신임을 알 때 원수에게 친절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주는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 : 2)

이제 사랑이라는 높은 덕과 자애에 관하여 특히 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애는 어떤 의미에서 사랑과 같습니다. 옛 선지자가 모로나이가 그의 부친 물몬의 말씀을 인용한 가운데 이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 졌습니다.

“……너희에게 자애가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 자애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게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모로 7 : 46~47)

자애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만을 뜻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갖는 사랑,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갖는 사랑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세주가 말씀하신 사랑은 결코 공허한 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속죄의 희생과 피로써 그의 계명에 복종하는 자의 승명과 영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속죄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 15 : 13)라고 하신 그의 가르침을 살아 약동하게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여러 가지 행동은 그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13 : 34).

페르샤의 고독한 한 청년이 독일 뮌헨에서 인생의 의미

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와 유
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느끼는 물질과 이기주의 사상에
크게 마음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의 문을 두
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문의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는 종교에는 전혀 관
심을 갖지 않았었고 그의 냉소주의와 의심으로 인하여 하
나님의 존재나 진정한 삶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이들 선교사가 사용하는
영어의 액센트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4개국어를 통달했으
나 영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안으로 초대하였으나 선교사가 미처 토론
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당신네들의 하나님이나 종교에
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실의와 의심에 가득찬 눈초리로 미소를 짓고 있는 선교사
를 어둡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내 선교사 중의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
랑합니다!”

이들 선교사의 이 짧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젊은이
에게 더 할 수 없을 만큼 절실했습니다. 성령이 곧 이 젊
은 청년에게 이들 선교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침례를 받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
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그 간결한 진실의 이야기가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한 것입
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만 회복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방문, 영감으
로 마련된 복지 사업, 신전에서 의 봉사, 범 세계적인 선교
사업이야말로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
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실제로 이행하는 방편
인 것입니다.

특히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마음
으로 뜨겁게 전해오는 감사함과 충구스러움으로 인하여 마
음이 설레입니다.

구세주의 속죄를 허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
리들에게 크신 그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
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
3:1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구세주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여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요한 14:21) (밑줄친 부분은 부가했음)

사랑은 영원한 원리이며 영원한 덕입니다. 사랑은 이 세
상의 삶이 있기전부터 작용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것
입니다. 벡케이 대관장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사랑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가장 고귀한 인간의 품성입니다. 여러분이 사
후의 삶 곧 불사불변을 믿는다면 역시 사랑의 존재를 믿어
야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상실될 수도 있는 덕성입니다. 나태와 불
성실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사랑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벡
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상태를 경고하셨습니
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취하지 못하면 죽어 버리
듯이 사랑도 그렇게 아사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불행과 슬픔
과 혼란으로 뒤숭숭한 이 세상의 질병과 고뇌가 사라질 것
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세상에는 법관이 필요없게 될 것이며 감옥
도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스스로 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높은 담벽이나 철조망, 돌레를 지키는 대포나 소총
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이 세
상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친구가 되고 전쟁이나
유혈의 참극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
며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
한다면 가정 불화나 다툼, 불순종 등이 있을 수 없을 것이
며 이혼, 범죄, 청년의 방종, 가정 파탄 등도 제거되고 도
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질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태장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를 여러 사람앞에 입증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가운데, 나는 평생 나의 아내를 사
랑하였고 나의 자녀와 증손을 사랑하였으며 나의 조국을
사랑하였습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해 전에 벡케이
대관장님은 이 집회 장소에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곳에
모인 신권 소유자 9,000 명이 나아가 온전히 구세주의 가르
침대로 생활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개조할만한 능력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대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텔레비죤이나 라디오를 청취
하고 계신 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리인 사랑의
원리대로 생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니, “이
땅에 평화와 깃들게 하되 내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라는
찬송가의 의미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을 존
경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과 그 주변을 변경시킬만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모두 나아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



모범의 힘

십이사도 델버트 엘. 스테플리

● 나의 사랑하는 행제, 자매 그리고 벗 여러분, 부패하는 현대의 도덕과 정신적인 지주를 우리의 기독교인 다운 모범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생활로서 구제하고자 한다면 더욱 정신을 차려서 복음의 원리와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정예가 서린 탄탄 대로를 던져 버리고 오직 파멸과 패망으로 인도하는 악의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딛고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와 의의 모범이 되어 생활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성품을 가진 자를 더욱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그 모범의 힘은 큰 위력을 냅니다. 이러한 사람의 용모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덕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테이크 대회를 끝내고 비행기편으로 귀가하던 중 마침 비번인 스튜어데스 양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개를 끝낸 다음 그녀는 자기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아이 중에 쏘트레이크시 출신이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내가 그 소녀가 물몬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예”였습니다. 그는 그가 새로 사귀게 된 물몬 친구를 극구 칭찬하면서 그의 신앙, 행동, 모범적인 행실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철인에게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을 위하여 좌우명이 될만한 훌륭한 옛 선생들의 재질을 셋만 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첫째, 모범으로 가르치고, 둘째도 모범으로 가르치고, 셋째도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는 일찌기 세상에 알려진 예가 없는 훌륭한 본보기이십니다. 또한 그는 그가 가르치시는 바를 실제로 생활하여 모범으로 보이신 까닭에 그의 가르침은 세기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범이 되기 위하여는 가히 다른 사람들이 서슴치 않고 본받아 생활하여 축복을 받을 만한 본보기로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고귀한 이념이나 동기에서 일어섰을 때 역사는 위대한 열매를 결실했으며 고귀한 이상을 던져버린 세대에서 우리는 지금 그 별을 받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높은 생각이나 영롱한 언어는 그야말로 울리는 꾀과리요 울리는 늦쇠에 불과합니다.

“네가 바로 너로서 내게 전하는 울림으로 인하여 나는 너

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겠노라”고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니삼 18:16)

이와 같은 우리 구세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생활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품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 하시고 그 입에 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 하시며.” (벧전 2:21~23).

“기독교의 이념은 시도되지 않은 채로 미혹한 것으로 던져져 있다.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시도되지 조차 않은 채로 있는 것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 5:16)

이 성구는 선한 모범됨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대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내일이 닥아오던지 간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반사를 다스리신다는 확신으로 이를 맞으려 할진대 우리는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관장님의 이러한 간청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지 21년이 지난 오늘날, 창궐하는 부패와 사악함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에게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사람마다 바른 원리를 배워 이로써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른 원리와 표준과 이상을 가르치지만 세상에는 이를 잘못 관리하여 스스로를 그릇되게 다스리는 자가 많습니다. 바른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주님께서는;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교성 105:5)

물론경에 소개되는 예언자 니파이는 그의 형 레이먼과 페류엘의 강박함에 통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은 나의 형이라. 형이면서 어찌하여 동생인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리만큼 마

음이 어둡고 완악하던 말이나?

어찌하여 아직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 하느냐?

인간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어 일할 때 주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으심을 어찌하여 잊었느냐? 이제 우리는 주께 충실하자.”(니이 7:8-9, 12)

우리는 이러한 니파이의 기록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거룩하였으나 육체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세상에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순종함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이려 함이니,

“그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느니라.

“이는 또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끝나고 들어가야 할 문이 협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저들 앞에 본이 되신 것이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 ‘나를 따르라’ 하셨으며, ...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니이 31:7, 9~10, 12)

이 권고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니파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나니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니이 31:15~16)

이 가르침에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 기도 합니다.

니파이인의 예언자의 아들 코리엔톤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어리석게도 창녀 이사벨에게 저 그의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소행으로 낙심한 엘마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엘 39:11)

진실로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웅변보다 낫습니다.

미네소타 야구단의 새로운 감독 빌리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주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신사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소년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선수가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나는 이 야구 감독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치려거든 바른 일을 행하라. 사람은 보고서야 믿는 법이니 먼저 저들에게 보이라.”고 작가 도레오는 말했습니다.

이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모범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 유일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모범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스웻슨 부인)

니파이의 동생 야콥은 부모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자녀들 앞에 보인 일들로 하여 자녀들이 얼마나 비탄하였을까를 기억하며 너희의 더러움이

너희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아 넣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저들의 죄가 너희 머리 위에 없게 될 것을 기억할 지어다.”(야 3:10)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일에 내려주신 계명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침례를 받도록 하며 주 앞에 의롭게 살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게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교성 68:27-29를 참조)

맥케이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어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기를 가르쳐야 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특히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청결한 생활을 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모범의 생활을 하게 하며 만약 부모가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절박하고 텔리케트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가 보여준 모범을 바탕으로 판단과 지혜의 눈을 기릅니다.

예언자 야콥이 니파이인들에게 전한 권고의 말씀을 다시 살펴 봅시다.

“.....너희는 착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음에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렐어 너희를 고발하니.....”(야 2:35)

오늘 아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는 바로 지금 부모된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모범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녀 앞에 자녀가 딸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선한 모범을 계속하여 보여 주면 어린 아이들은 차차로 마음을 돌려 점점 사악함 보다는 의로움을 택하겠다는 뜻이 커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본받아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험악한 얼굴을 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선행과 명량한 모습과 친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공평치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회초리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르쳐야겠고 훌륭한 모범을 보여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남을 속이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며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 오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겠습니다.뿐만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정직하고 참되거라. 유덕하고 친절하며 부지런 하고 신중하고 또 선행에 힘쓰라’고 한 부모의 가르침을 늘 기억했노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은 저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경전에서 모범에 관하여 이야기한 기사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

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 : 6, 8-12)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지도자와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의 원칙대로 살고 표준을 지키며 높은 이상을 생활하여 복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이러한 것을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을 먼저 스스로 해야겠습니다. 위선은 정죄를 가져 옵니다.

침례 회망자는 침례를 받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도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지 합당하지 않을까요? 기타 모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결점은 감추고 공명정대하게 부름의 정신에 입각한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행하는 바가 천국에 기록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승영과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이 교회는 소중한 가치있는 교회입니다. 만일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교회라면 곧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없이는 승영도 영원한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가 재림하시기 전에 악마가 창궐할 때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 주셨으며 우리는 오늘날 그 징조를 여러 면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 경전의 말씀을 한 옆으로 던져 버렸으며 소위 식자라는 현대의 사람들은 구세주와 그의 커룩한 예언자가 강조하여 전 세대를 통해서 가르치신 기분이 되는 복음의 원리를 자기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마가 창궐하는 이 말일에도” 주는 “그의 성도들을 지키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교성 1 : 35-36)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약속입니다만 구세주께서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은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야 말로 주가 다스리시는 유일한 백성입니다.

에녹과 그 백성들의 기사를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사약하므로 온통 타락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그 조상들이 가르쳤던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께로 인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열심히 일하였던 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변형시켜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세서 7, 8장을 참조할 것)

예수께서 교역하시고 유대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 미 대륙의 주민을 방문하셨으며 주의 이와 같은 방문이 있을 후로 이곳 주민들은 완전히 악의 길에서 떠나 의로 돌아섰습니다.

니파이사서에 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십 육년에 이르러 온 땅의 백성들이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 나를 막론하고 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 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 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으니,” (니파이사서 2 : 15-16)

우리는 이상의 두가지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복음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일견하여 도저히 이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의롭게 살면서 의와 영원한 부를 추구한다면 이땅에도 이상의 왕국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살던 시대가 지난 다음 이들은 또다시 악의 길로 빠져 들어갔으며 물몬은 모로나이에게 전하는 그의 두번째 서한에 그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강박함을 통탄해 하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의 타락함이며, 저들 가운데는 질서도 자비도 없도다. 보라 내가 사람인지라 다만 사람의 능력만을 가진고로 나의 명령을 더 강요하지 못하며

“.....전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좋아하며,.....

“.....보라 너는 이 백성들의 간악함을 알며 너는 이 백성들이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백성임을 알며 저들의 간악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더한 줄을 아는도다.”(모로 9 : 18-20)

이 시대에 와서 역사는 다시 시작하려는가?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책임은 물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야기한 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수고를 그칠진대 정죄를 받을 것인즉, 저들이 비록 강박할지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자,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다 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를 다하여 온갖 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모로 9 : 6)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생활하고 합당한 표준을 지키며 의로운 뜻을 지키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높은 이상대로 생활하기란 심히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법에 의하건대 세상 만사에는 표준이 있다.”(테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정직, 유덕, 의로움, 도의, 지혜의 말씀, 선행에 관한 모든 계시의 말씀 등에 좇아 생활할 때 우리는 남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행하는대로 너희도 보고 행하라”고 할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임무와 사명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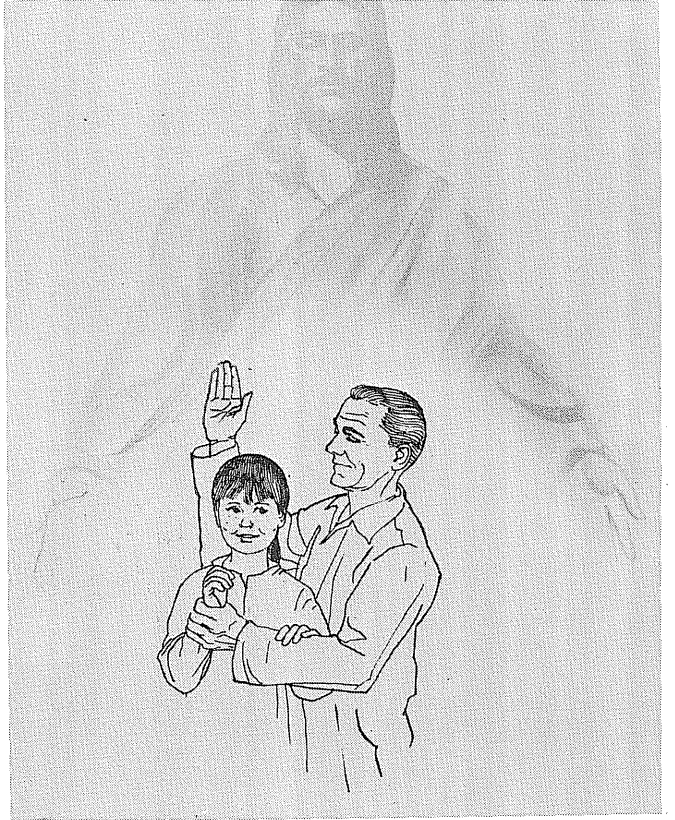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어떠한 경우 에라도 남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 특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가 따라 올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종교적인 성약을 이룸에
있어 인간과 하나님은……

훌륭한 동반자

로웰 엘. 베니온



●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성약—침례, 성찬, 결혼, 기타—에 관하여 토론 하던중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인간이 이러한 성약을 나눔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욱 많이 바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두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질문은 곧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고 흥미를 갖게 했다.

어떠한 성약이건 성약을 맺을 때에는 사람은 정성과 뜻과 힘을 다 하여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한다. 예를들어, 침례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며, 상한 심령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충실하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힘든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며 우리를 그의 왕국에 영접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상 열거한 이 모든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성약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관용과 예지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관용이나 지혜를 따를 수 있겠는가?

둘째로, 복음 안에서 성약은 각자 자기의 이권을 다투는 사업 계약과는 다르다.

국가와 국가간의 모임에서도 이들은 평화 회의를 싸고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종교 의식은 자의적인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의 복리를 염려하게 마련이다.

베냐민 왕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연설에서 비록 인간이 부단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관용에는 따르지 못하리라는 것과 늘 “부실한 중”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과연 그의 논지는 매우

흥미 진진하며 논리적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고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인 영생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도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이를 지킬 때에 이에 따르는 축복과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의 우리 생활이나 영원한 생활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복음의 원리는 없다. 예를 들면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겸손은 겸손의 축복을 가져온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됨을 뜻하며 우리가 정의의 지식에 따라 행동함을 의미한다. 회개는 내적인 공포와 혼란을 씻어주며 용기와 자기의 자부심을 일깨워 준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온전하고 즐거운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인간의 복리를 저해할 뜻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원리—안식일의 예를 보아도—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시도해야 할 위험한 일은 남에게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일이다. 많은 선지자가 사람이 던지는 돌팔매의 표적이 되었다.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다. 우리는 사도의 시대와는 다르게 범신도로서 기독의 원리를 살자고 의치고 있으며 이것이 평화의 첩경임을 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님을 필적할 수는 없다. 주는 그의 목숨을 바치셨다. 그리고 영광스런 내일의 약속을 준비하셨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계명이건 이를 지키기만 하면 즉시 이에 상당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주님과 나눈 성약을 지킬 때도 즉시 보상해 주신다. ○



가르침은 개인과 이념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진 디. 쿤스

● 성공적인 주일학교 교사는 교재의 공과 내용을 개 개인이 모인 집단의 성격과 요구에 부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가르침은 이념과 개념과 사람들 개개인 간의 다리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다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넓게 열렸다면 교사와 생도간의 교제는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양쪽이 다같이 배우게 되며 공과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생도의 행동은 서로를 움직이고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칠 준비

아이들이 여섯살 정도가 되면 조용하거나 차분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대개 이 또래의 아이들은 비틀고 재잘거리고 도전적이고 끼리끼리 짝을 짓고 극성스럽게 배우려 합니다. 그 중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의 입장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미 이스라엘을 여행하여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곧 예수가 가르치신 장소를 연상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기 교향이나 집 들레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나 그의 업적에 관하여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질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에게는 예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여우와 거위」 장난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를 먼저 아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경험 등에 관하여 말입니다. 서로 서로를 염려하는 친구가 되어 어린이를 대하여야겠습니다. 눈과 눈으로 음성으로 또 언어로 우리는 무한한 것을 서로 교통합니다. 상호 교통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교사는 생도를 바라보면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반복해 주기를 바라는지 읽는 속도를 늦춰주기 바라는지를 압니다. 어린이들이 피곤해지면 노래를 시켜 분위기를 바꾸고 성경 구절을 전체가 암송하게 하던가 마음대로 지껄이면서 어린이들만의 휴식을 만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례

적어도 공과 중의 한 과는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미국에 살던가 구라파에 살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를 상관치 않고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유능한 교사는 공과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생도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교사는 어린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만인이 느끼는 공통 의식과 개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복음의 원리 중의 하나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나 이웃 사람이나 친구에게 친절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는 대답을 하지 못할테니 이렇게 내용을 바꿔 봅시다.

“영애는 오늘 아침 선생님의 가방을 대신 들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훌륭하게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부끄러움을 타던 아이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 하겠다는 결심을 할 만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여섯 살 짜리가 일어나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을 불안 스럽게 생각하고 주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를 공과와 결부시킬 수만

있다면 어린 아이는 차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결국은 말하기 전에 생각할 줄 알고 여러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가 자기는 물론 반 아이 전체의 지식 향상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어떤 주일,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더니 한 아이가 별똥 일어나서 :

“예수님의 발은 컸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교사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다는 것은 그를 본받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완전한 분이셨으므로 그의 발자취 곧 그의 업적은 우리가 본받아 생활할 만큼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같은 분의 모범된 생활을 알고 있으므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어린이의 질문을 받아들였으므로 반 전체가 교사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는 참 오랜 시간입니다. 어린이가 무엇인가를 집으로 가져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공과 내용과 관련된 시를 적어 주고 매일 들여다보도록 머리를 빚는 거울 옆에 붙여 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시를 적어 주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론 :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1. 철저히 준비하여 책을 집에 두고 갈만큼 준비하십시오. 늘 반 학생을 살피어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2. 어린 아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거든 잠시 공과나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저들이 피곤해 보이거든 활동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던가 휴식 운동을 하십시오.

3.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아이임을 알게 해 주시고 공과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그 아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확신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4. 여러분이 맡은 반 생도가 여섯 살짜리 입을 인지하여 여러분과 반 사이의 교량이 완전히 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배울 것입니다.

5.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주도록 하고 주일에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매일 가르침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교수 내용 평가 :

매주 주일학교가 끝나거든 목적이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과연 복음의 원리를 배웠는가?

공과의 성패는 무엇으로 측정할까?

공과 진행중의 어린이의 관심도는 곧 공과 성패의 척도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가 복습 토론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가 공과의 내용과 이념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를 말해줍니다.

공부한 것을 어린이에게 그림으로 그리도록 해 보면 과연 저들이 무엇을 배웠느냐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 공과에 대한 질문은 지난번에 무엇을 배웠느냐를 검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초가 되어야 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사표는 선생 자신입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아침에 가르치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나?”를 자문할 때 말입니다. ○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학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유년 주일학교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명하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 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니파이일서 3장 7절)

11월 주일학교 성구암송

복음의 멧세지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요한 반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장 13-14절)

어떻게 여자다움을 가르칠까?

작자 알버트 엘. 페인은 교회 교육과 세마나리 편집인이며 청소년 담당 협의회 위원으로 전에는 청년 상향회 총관리 임원으로 수고하였다.

● 꽃가게 안의 젊은이는 키가 훑칠하고 머리는 짧게 깎았고 그리고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졌다. 그는 꽃을 기다리는 동안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기웃거리다가 꽃이 정해지자 이제는 카드에 무엇을 적을가를 골돌히 생각했다. 빨리 거래를 끝내고 싶은 성급한 점원은 “사랑하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다 하여” 등의 문구를 들려주며 재촉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고 있더니 얼마를 더 생각한 후에 “행복한 발렌타인” 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다.

유능한 여비서가 고용주에게 사의를 표해 왔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목장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남편은 교육 과정과 학위를 끝냈지만 소년 시절의 꿈을 좇아 목장으로 가는 거였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젊은 여인은 이미 자기는 남편과 함께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해 왔다고 전제한 다음 어디서 무엇을 하던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두가지 예에서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위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가를 생각해 봄직하다. 도대체 어떠한 훈련을 쌓았길래 젊은 청년이 여자 친구에게 꽃을 선사하려 했을까? 어떻게 해서 젊은 아내가 남편의 처지에 자기의 행복을 걸게 되었을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성인들의 생활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영원한 모습과

가치를 배우기는 했으나 이를 실 생활이나 마음 가짐에 늘 연결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수 방법을 연구하였으나 그중 여러 가지가 그리 효과적이 아님을 배웠다.

별로 주의를 해서 운전하지 않는 운전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부주의한 운전수가 운전할 때의 위험을 지적한 영화를 보라고 해서 자기의 태도를 쉽게 고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순결의 법이 꼭 의사의 가르침이나 주일학교나 상향회 기타 세미나의 공파로 인하여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파 하나만으로는 젊은이들이 전혀 이상적인 비존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의 자세 내지는 관념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잡하고도 긴 작업이 되는 것이다.

여자 친구에게 꽃을 선사할 수 있는 젊은이는 다른 경우에도 여자에게 친절과 이해의 관용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쉽게 간주된다. 아울러 이러한 젊은이는 여자가 남자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느낌도 다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젊은이는 도로법을 잘 준수하여 운전하며, 길을 걸을 때는 잔디밭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걸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결코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모두를 공파의 가르침한 구절이나 하루 이틀의 경험으로 배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의 감정이나 요구에 민감하고 협조적이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용기와 사랑을 가진 아내는 이미 결혼하기 오래 전에 남편될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졌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인인 우리들이 젊은이의 귀감이 될 이상과 성품을 가르치며 이로써 저들에게 여성다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첫째,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상을 여러 가지 실례에 연관시켜 주어야 하며, 둘째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성다움에 대한 성품은 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여자 아이는 차차 자라면서 여성다운 경험을 거치면서 스스로가 여자임을 쉽게 깨닫게 된다. 뜨게질을 하고 꽃과 가구를 정리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활동에서 모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자는 여성다운 여성으로의 속성을 가진 여성으로 여자다움게 행동하고 따라서 숙녀의 태

접을 받는다. 아름다움에 대한 눈을 가졌으며 분수와 조화를 구할 줄 아는 여성은 옷을 선택할 때에도 물론 아름다운 것을 입되 단정하고 분수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며 결코 사치스러운 것 하나에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은 차츰 승화된 여성다움의 영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젊은 남자가 한창 거칠고 이기적이고 몰지각하여 세상이 온통 자기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할 시절에 이들은 흔히 여성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창조된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태도 역시 여성다움에 대한 공과 하나로 시정되지 않는다. 이 우주에서 가기가 주인공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세상 만물이 모두 자기를 떠받들고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남을 위한 봉사나 헌신 같은 것은 여간해서 생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주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은 예절의 법을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인 가치에 둔감한 사람은 생의 참다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집안에서 일을 할 때나 자기를 남에게 보여야 할 때 스스로의 긍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쉽게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여성의 이상을 가르치려면 다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가르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젊은이들이 성찬을 전달하거나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거나 기타 대외 활동에 참여할 때 긍지를 갖듯 매사에 자기들 대로의 바른 긍지를 갖는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저들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기들의 차림새나 표정을 바로 하고 허가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잘 협조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젊은이들이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표준을 준수할 줄 모르고 남의 사정을 살필 줄 모르고 삶에 있어서의 교양의 비중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여성의 품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여성의 성품을 배우려면 먼저 자기와 타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높고도 고상한 생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또한 맡겨진 일은 최선을으로 처리하고 유혹이 닥칠 때는 이를 거부할 줄 아는 자제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기쁘게 봉사하되 최대의 효율을 목표로 일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배워

야 하며 자제력을 훈련하는 가운데 자기의 긍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지식의 기초가 쌓였을 때 비로소 교사는 젊은이들에게 의미있고 합당한 「여성다움」의 이상과 개념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다움」의 기초는 자부심이다. 「여성다움」이란 어디까지나 이념의 존재이므로 우리들 주변에서는 불완전한 본보기 밖에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간에 여자는 섬세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삶의 영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의 여인상을 간직한 남자는 수시로 지나치는 여자가 과연 가치 있는 여자일 것이냐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 이상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이상적인 여성으로의 이상을 지니고 사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들을 그저 노리게감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크게 실망한다.

「여성다움」을 가르치는 두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체험의 지식을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제의 가르침은 어떠한 형태이던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그 학령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보고 들을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다행스럽게도 가정에서 그러한 모델을 갖게 되는 때도 있고 「여성다움」의 가치와 영광을 이미 배워 알게된 때도 있다. 가정내의 모델이 훌륭하지 못할 때에는 와드나 지부에서 다른 모델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어른이고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편은 젊은 층이므로 자기 분수와 입장에 맞도록 적절히 조절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받아들인 이상을 실천에 옮길 기회도 가져야 한다. 「여성다움」이나 예절, 에티켓 등의 공과를 취급할 때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배우는 이상을 실 생활에 충분히 그리고 합당하게 응용시킬만한 시간적 여유를 허가해야 한다. 공과가 끝난 다음에는 충분한 복습을 통하여 생활에의 온전한 응용을 피하도록 한다.

결론으로, 젊은이들에게 「여성다움」의 의미와 개념만을 무작정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중요한 삶의 가치와의 제반 관계를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목표와 가치를 상실했을 때의 손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애프톤 더블유. 헌트
상호 부조회 총관리 임원

● 어떤 사람이 하루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해하기에 곤란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은 다만 다메섹으로 가라는 분부를 받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시겠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단순한 지시에 복종했던 까닭에 사울은 커다란 보상을 받았으며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과 인류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측량할 수도 없는 봉사의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죄악과 의로움간의 갈등과 혼란을 목격하고 있으며 기약할 수 없는 내일에 대비하여 우리의 가족을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나부의 여인들이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저들의 거취를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딸들에게 바라시는 봉사와 발전과 의미있는 생활에 대한 계획을 간결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영감적인 착상으로 그는 자매를 규합하는 모임을 조직한 후 이 모임을 통하여 자매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했고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삶의 도전과 문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계획에 순종하므로써 상호 부조회는 이 세상에서 여성 조직으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이 땅에 서게되었습니다. 상호 부조회나 부조회의 활동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는 모두들 크게 놀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이 모임을 그저 평범한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한 채 이 모임의 참된 축복과 감화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과 친지에게 상호 부조회가 허가하는 축복의 기회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스테이크가 들어선 전역에 걸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매는 물론 침례를 받은 회원 자매까지도 아직도 상호 부조회에 관하여 그 성격이나 놀라운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을 통하여 상호 부조회가 가르치는 건설적인 힘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성경을 읽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상호 부조회의 회원인 우리들의 작은 행동에서 울리는 웅변 이상의 힘찬 웅변을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우리가 생활의 표준이나 품격을 상호 부조회 회원의 모범된 생활을 통하여 높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어떤 여인이 세상에서 소위 「물몬교」라고 일컫는 우리 교회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물몬 공보실에 협조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는 물몬교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다음 호주에 있는 그의 친구 하나가 물몬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애기로는 그 친구가 교회에 속하게 되더니 그 교회의 여성 조직에 이내 가입하고 그리고는 아주 짧은 동안에 그 생활의 모습을 전혀 달리 하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생활의 모습도 예전과는 정반대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네는 만끽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문자는 미국을 관광하는 동안 그의 친구가 가입한 조직에 관하여 좀 알아 볼 뜻으로 플트레이크 시에 특별히 들렀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조직 이래로 상호 부조회 자매들에게 주어질 제반 지시 사항이 근대의 생활 여건 속에서도 역사의 어느 시기이나 그랬듯이 합당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은 펍이나 재미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호 부조회는 우리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영의 촛불을 켜는 계기를 열어 주며, 이로써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 앞에 진리의 집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며 모범된 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주여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야 할 바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따 뜻 한 교 훈

그레이 이. 바우

● 그것은 내가 처음 사냥을 갔을 때 일어난 일이고 내가 열살 밖에 안되었을 때지만 나는 결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을에서 세시간이나 자동차를 몰아야 했던 그 금요일의 여행은 끝이 없이 긴 여행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아직도 싱그러운 숲의 냄새가 온통 진동하던 10월의 쾌청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오후의 햇볕은 맑은 산골의 공기를 따스하게 하였고 골짜기마다 가을의 영롱하고 맑은 기운이 조용하게 풍요했던 그날밤은 정말 한 잠도 못 잤다. 나는 주체 못할 감상에 빠졌고 소년으로의 공상과 꿈은 불꽃 튀는 전장의 군인의 맥박보다 빠르게 움직여 갔다. 아버지와 숲을 지나던 때의 긴장과 들판에서 야영 천막을 치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나는 커다란, 정말 커다란 딱정벌레를 머리 속에 그려 보기도 하고 두 팔을 벌려도 못잡을 만큼 큰 빨사슴이 통나무를 뛰어 넘어 떡갈나무를 끊어 내리고 넓은 솔나무 숲으로 뛰는 모습도 그려 보았다.

그 하루 밤, 그 짧은 밤에 천 가지, 아니 천 가지 보다 많은 모험이 내 머리에서 다투어 뿔박질을 했다.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아직도 냉랭한 공기를 마시며 사냥은 시작되었다. 하늘은 캄캄한 밤의 표시였으나 나의 기력과 마음은 우리 천막을 묶어둔 키다리 나무보다도 더 높았다. 그때 먹던 계란과 베이콘의 맛, 따듯했던 코코아 차, 다시는 그런 걸 먹어보지 못했으니 말야.

아침은 너무 빨리 지났다.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없다. 아버지는 내게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고 또 사냥꾼이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벌써 우리들의 파티에 쓸 사슴을 두 마리나 쏘셨다.

흥분과 긴장에 싸였던 아침에 비하여 오후는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지난밤의 불면과 이른 아침의 작업과 따듯한 가을 오후의 햇볕이 나를 노곤하게 했다.

나는 약 백야드 쯤 아버지를 앞질러 가서 덤불을 헤치고 산 아래로 대로를 향해 걸고 있었다. 우리가 막 숲을 빠져 나오려 할 때 예리한 총성이 두 발을

렸다. 그리고 그 총소리는 맞은편 골짜기에 부딪쳐 산울림이 되어 퍼졌다. 나는 죽은 것처럼 풀 숲에 고꾸라졌다.

나는 죽은 척 하고 넘어진 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그러나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테레비존에 출연하는 카우보이 보다는 멋진 연극을 하면서——. 내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버지는 총을 집어던지고 전 속력으로 나를 향해 산을 내려 달렸다.

내게서 20 야드 쯤 되는 거리에 아버지가 닳아 오셨을 때 나는 크게 웃으면서 일어나 철없이, 정말 철부지 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놀렸다. “하 하! 작난을 했어요. 아버지는 감쪽같이 속았죠?”

나는 그때 공포와 위안이 한꺼번에 영킨 창백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나는 내가 잘못 했을 게 달았다. 아버지에게 드린 깊은 상처에 대하여 뭐 변명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한 일이 없었던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비친 아픔의 빛을 더욱 아프게 받아들여야 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게로 다가오시면서 틀림없이 나를 한대 때리시던가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주실까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때 그 순간의 나보다도 더 송구스럽고 뉘우침으로 가득찬 10살 짜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그림자 뿐이었을까? 우리가 서있던 짧은 시간은 바로 영원처럼 길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나의 작은 어깨 위로 두 팔을 감으셨다.

나는 아버지 목에 팔을 두른채 울면서 몇번이고, “아버지 잘못 했어요, 잘못 했어요, 잘못 했어요”를 연발했다. 그때의 그 온전한 겸양과 뉘우침으로 나는 다시는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드리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공부하게 된 따듯한 가르침의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 것이다. 그때로부터 나는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부모님께 보이려 노력했고, 나의 잔인함과 사악함과 게으름으로 부모가 아픔을 갖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였다. ○



청소년 편

세상의 「극 소수만이 염려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청소년은 허영, 사치, 파렴치, 멋대로 놀아나는 사랑 기타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야 겠고 여대생은 주변의 친구를 남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권유해야 겠다.

소수의 사람만이

린다 수 로퍼

●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이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자.” 이 말씀은 벡케이 대관장님께서 특히 교회의 청소년에게 전하신 말씀이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도 고루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일과를 갖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를 갖지 않은, 생활의 표준이나 가치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기는 교회 회원 중에도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휴 비.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유대를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친구로 맞는다면 얼마 되

지 않아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나쁜 버릇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 12 : 3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사람은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박한 것은 텅 빈 머리에서 나온다. 천박스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노릇이다. 천박하다 함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을 바른 말로 발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박한 사람은 육지거리를 하게 마련이지만 이를 들어줄 사람은 없다.”

소위 친구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도덕의 모양과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동반자를 택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서로 닥치는 대로 놀아나는 식의 사랑을 구가하는 자들과 친구가 된다면 오래지 않아 아마 우리도 이러한 친구라는 자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라디오와 같습니다. 라디오는 여러개의 진공관을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 성찬식 참여 진공관
2. 십일조(전축기금도) 납부 진공관
3. 경전 공부 진공관
4.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진공관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장차 갖게 될 것을 중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덕관”에 대하여 자주 논쟁을 벌입니다. 다른 교회의 제법 젊음은 사람들도 “신도덕관”에 가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의 표준을 내려 주셨으며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는 계명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또한 성도는 음행하지 않아야(고전 5:9)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지난 봄 쏘트레이크시와 옥든시의 여대생을 위한 대회가 태버나클에서 열렸고 이자리에서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갖는 재미로 인하여 슬픔이

나 뇌우침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높은 생활 표준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면 우리 스스로의 높은 표준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갖는 재미를 가치있는 추억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구하는 길은 매일 아침 주께 간구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고 아침에 간구한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녁에는 어떠한 것을 보고하게 될까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에 따라 생활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우리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과 용기와 또 이러한 것들을 유지시킬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생애의 동반자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생애의 동반자를 가까운 친구 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가깝게 사귀며 데이트하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아내나 남편으로 맞을 것입니다. 신전 결혼을 계획한다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불결한 자는 하루 아침에 개심하여 신전 결혼을 서두르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영원한 결혼이라던가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면 얼마 안되어 신전 결혼의 꿈도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근목자혹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내려 앉겠다는 새를 막을 도리는 없지만 새가 둥지를 짓겠다고 하면 이는 방지할 수 있다.”

자기의 표준을 지켜야

해롤드 비. 리 형제는 우리의 부모나 친구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로 인하여 응답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래 제시하는 사항은 우리들 말일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가를 암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힘들게 노력합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마음을 두고 있지만 결국 깨끗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의 표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들에서 적어도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극 소수의 한 사람으로 우뚝 앞에 나아가 서야 하겠습니다. ○



모범이 되자

선교부장 서 현 보

●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는 우리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악의 힘이 너무도 많습니다. 유혹은 강하게 작용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보상 또한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 같기도 보입니다. 얼마전의 일입니다만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버려야만 했던 회원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선택에는 강하였지만 댓가로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여야 했고, 그 보수로 많은 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될 그녀였지만 주님을 한층 더 사랑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들 모두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되고도 남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저조한 상태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부질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서서 외부로의 나쁜 공격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며 교회의 표준과 그리스도와 같은 이상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언제나 따르며 훌륭한 도덕과 영적인 개성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로운 생활에 익숙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으며, 정직하고 참된 사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웃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범이야말로 개종의 최상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 태도에 감탄한 나머지 참다운 삶을 택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새로운 교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교사의 생활을 대표할만한 요소 세 가지를 적어보라는 부탁을 받은 어떤 현자는 이를 “첫째 본보기로 가르치라. 둘째 본보기로 가르치라. 셋째 본보기로 가르치라”는 것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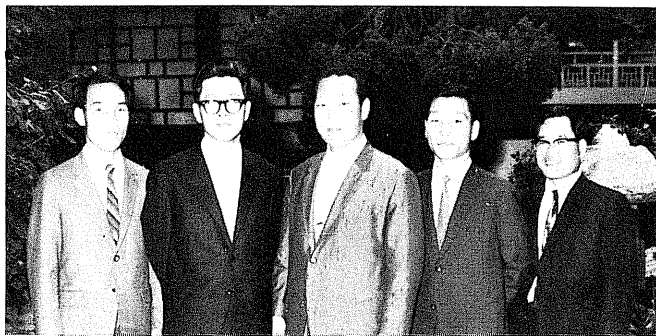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남이 따를 만한 본보기가 있습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는 이 세상이 이제까지 가졌던 본보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일거 일동에 예수의 가르침을 심어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위대한 교사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경전을 읽으며, 훌륭한 교재나 참고 서적을 통하여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이란 교재를 마쳤읍니다만 계속하여 연

구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영감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지침이 될만한 책으로 탈메지 박사가 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책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은 뉴욕주 북쪽 그 자리에서 물론경 이야기를 주제로 구모라 언덕의 제전을 벌립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규모는 제작 과정에 수백명의 회원과 선교사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제전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 이외에도 이들 출연자와 기술자들이 그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론의 본보기입니다. 그 지방 신문의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말일성도의 회원과 그의 친구가 구모라 언덕에 모여 갖는 연례 행사는 실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수많은 출연자 또한 장관이다. 집엘 가나 직장엘 가나, 어디를 가나 그들이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를 이야기하고는 한다. 단순한 주말의 심심풀이가 아닌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종교란 무기력하며 게다가 그 영향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지론에 굴복한 사람은 이 제전에 감동고 있는 열의를 한번쯤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현명하겠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보기 드문 정경으로 가득차 있다.” 한 사람을 알고 15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가장이 된 가정을 개종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곳 한국 땅에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방문을 받은 그는 15년 전 이차대전중 훈련소에서 알게 된 물론 장교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생활을 연상하면서 선교사의 인도를 반갑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어울려 노는 순간에도 교회의 가르침이 발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친구나 이웃 사람이 “내가 따르고 싶은 본보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보기로 가르치라”고 하신 분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 해야 하겠습니다. ○



늘 기뻐하면 행복하리라

중앙지방부장 차 종 환

● 물론은 괴롭고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지라도 언제나 유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9세기 초에 나부의 정든 집을 뒤에 두고 광야의 여행을 할 때 그들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없다...”는 노래로 신앙과 용기를 계속 북돋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고난의 긴 여행을 그들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소유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신 자세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에 주께서는 만일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유쾌한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지킨다면 지상의 모든 풍성함은 그들의 것이 되리라 하셨고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유익한 물건을 향유하고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며,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 보다 더욱 큰 축복, 행복, 성공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히 생각함은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요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살기 힘든 이 사회에 몇시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인 바이론은 나의 일생에 24시간 밖에 즐거운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고, 괴테는 나의 일생 중에 즐거운 시간이 4주일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환난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안심하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나 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모두 부름을 받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이 모든 영광을 누리리라.”(교성 101 : 35) 하셨습니다.

의인의 신앙생활에 핍박과 환난이 따르는 것은 의의 일생에서 당한 고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하셨습니다. 천국은 성도의 최고에 이상이요 동경인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이 장차 갈 곳입니다. 의를 구함에 핍박이 있음같이 주를 위한 생활 중에서도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육 먹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

리라.”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하늘 상금을 생각하며 핍박한 자를 사랑하여 화평을 얻는 다는 것은 이 이상 큰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우리의 적인듯 하나 사실은 진리가 그들 중심에 없음이요 또는 그들의 무지가 우리를 핍박케 하는 것이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짝사랑하다가 실패한 형제가 사사건건이 그 자매를 헐뜯어 못살게 하여 그 자매는 괴로움에 시달린 나머지 그 형제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도 사랑 많은 진실한 예수 믿는 형제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회박하기 때문에 복수심이 생기고 핍박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못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주시고 물과 공기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주시듯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실행할 때 핍박자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이로 인해 행복함을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사랑하라. 선인도 악인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때는 끊임없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과학자 파스칼은 행복이란 인간의 마음 안이나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만사에 기쁨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히 생각하여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 기원 합니다. ○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훈

리차드 엘. 이반스

인생은 아름다운 것——만일 우리가 삶을 의의 있게 산다면 인생은 때로 고달픈 것이며 인생이 때로 고달프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권고와 주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영을 저해하며, 건강과 평화를 깨치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복잡한 문제와 갈등을 가져올 문제에 휘말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통용됩니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부단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음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상처를 입는데 왜 벽이 서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읍니다. 결국은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문제로 귀착 됩니다. 리차드 처칠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인간이 진리를 대할 때 시간은 끝없이 소중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의식 상태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으로 연유되는 결과로부터는 자유롭게 빠져 나가지 못하며 율법의 운영 앞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읍니다. 한 프랑스의 철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적에게 우롱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배반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기만 당하는 일이 가장 아픈 일이다.” 장조주께서는 무엇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되겠읍니다. 이 세상에는 건장의 법도 있고, 행복의 법도 있으며, 화평과 진보의 법도 있고 “모든 축복이 약속된 많은 법이”(교성 130 : 20)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기를 두고 여러 차례 시도되어 입증된 이러한 법을 배우지 않겠다고 그대로 그 값을 치루지 않은 채 외면할 수는 없읍니다.